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合十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 印刷人 金炳浩(?)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購讀料·廣告料

朝銀券發行高週報 (自七月十五日至廿一日)
一、總發行平均高 一七、二四、五三
內 正貨準備 六七、七八二、九〇五 / 保證準備 四九、三四一、六一七
二、週末發行高 一三〇、七八、四三七、八〇

社說

三南水亂에 對하야 罹災同胞를 곧救濟하라

一

本月二日來의 暴風雨로 因하야 三南地方이 可驚할 全般的으로 大水害를 입게되어 各各 被害報告가 續續히 傳하게되는 慘狀은 昨今의 本紙가 隨時 迅速報道中이어니와 朝鮮의 穀倉이라는 三南地方이 最近 五、六年來로 마치 무슨 年中行事처럼 每年 水旱災로 因하야 多數同胞가 非常한 慘禍를 當하게 되는것은 우리에게 무슨 悲運이 未盡한 까닭인지 一種 恐怖의 念을 禁치아닐수 없다. 더욱히 慶南地方과 같은것은 昨年 大水災의 創痍가 아직 그中의 半도 가시기前에 이제 또 大洪水의 襲擊을 昨年보다도 甚지아니한 程度로 받게되는中이며 其他 全南의 榮山江流域, 全北의 萬頃江流域, 忠南의 錦江流域 一帶가 모두 洪水의 濁浪中에 무치어 良田沃畓이 水沒, 流失된것은 아직 그 程度, 範圍조차 알수없을 터이나 이미 判明된 被害의 數字만 보더라도 金海郡 大渚面에만 浸水家屋이 二千八百에 罹災同胞가 萬餘, 三浪津驛 附近에도 浸水家屋이 九百餘에 罹災者가 五千餘이며 또 全南一帶도 亦然하야 浸水家屋이 四千을 넘게되는 外에 이미 溺死中의 屍體로 된 同胞도 多數라고 한다.

二

그리하야 三南의 各大小江岸地方에는 밤이나 家財什物은 全部 流失하고 몸은 벌거숭이만 남어 或은 丘陵으로 臨時 避難하야 風雨에 露宿하고 있는 同胞가 不知其數라고 한다. 그러하야 그들의 飢餓狀態를 救하는것이 目不容緩인 것은 贅言을 要치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本社는 昨日 本社員에게 若干의 救恤金을 携帶시켜 當該各地方으로 派送하야 그 應急救濟에 微力을 다하는 中이다. 그러나 罹災同胞의 範圍와 程度가 上記한바와 같이 想像以上으로 廣大하니만큼 그를 비록 本社의 힘만으로는 到底히 萬分之一의 目的도 達키 어려운 바인즉 어찌 然하야 天災地變을 當하야 滿天下 同胞諸位는 마땅히 應分의 同胞愛를 發揮하여야 할것이다.

三

勿論 罹災의 救濟를 充分히 安排시키는 것은 當局의 職責이며 施政이 必要하겠지마는 當局의 施設만을 期待하야 罹災民의 危險을 坐視케하는 것은 多數有志同胞의 同族愛에 있어서 血誠熱烈이 아니고는 到底히 可望할수도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當該地方은 勿論, 全朝鮮各地方의 有志家와 및 有力者諸位는 各自 應分의 心力을 傾注하야 方今 風前燈火처럼 危險線上에서 彷徨하는 罹災同胞에게 適宜한 同族愛를 發揮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바이다. 무릇 누구나 一人에게 人類愛의 良心이 있다면 多數同胞가 不意의 天災 地變으로 因하야 所持의 家産과 田畓을 全部 喪失하고 悲慘한 境遇에 處하는 것을 보고도 어찌 自己의 身邊에 安閑히 坐視할수가 있으랴!

空軍根據를 알라스카에

米國이 建設하면 世界支配도 可能

將來의 戰爭은 空軍이 決斷

米國미첼將軍演說

【華盛頓發聯合二十二日發】 目下 靜養中인 미첼將軍은 二十二日 米國은 알라스카에 航空根據地를 두게되면 空軍으로써 全世界를 支配할수있다고 如左히 演說하야 注目을 惹起하였다

空軍의 統一은 반듯이 行치않으면 아니된다 將來 戰爭의 勝負는 空軍의 優劣如何로 決斷될것이다 알라스카에 空軍根據地를 두게되면 空軍力으로써 全世界를 支配할수있다 왜그런고하면 알라스카는 米國이 日本의 死命을 制하는 唯一의 空軍의 根據地인 까닭이다

알라스카에서 一年間飛行訓練

米國陸軍航空研究會의 提案

【華盛頓二十二日發聯合】 陸軍航空研究會에서는 二十二日 陸軍長官에게 對하야 米國飛行隊의 戰略的 價値를 增大하기爲하야 一飛行中隊는 알라스카에서 一個年의 飛行訓練을 하라고 勸告하였다

陸軍長官에 對하야 陸軍飛行隊의 改革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하였는데 當局의 態度는 注目되는 民間航空의 提案이며 當局의 內容은 如左하다

米國海軍及民間의 飛行界는 世界에서 가장 優秀하다 그런데 陸軍飛行界는 極히 沈滯되어 事實上 直時改革할 必要가 있다

一、陸軍飛行機를 二千三百二十四臺로 擴張할것

一、飛行士의 資格으로 必要한 飛行時間을 增加하고 困難한 狀況下에 訓練을 一層勵行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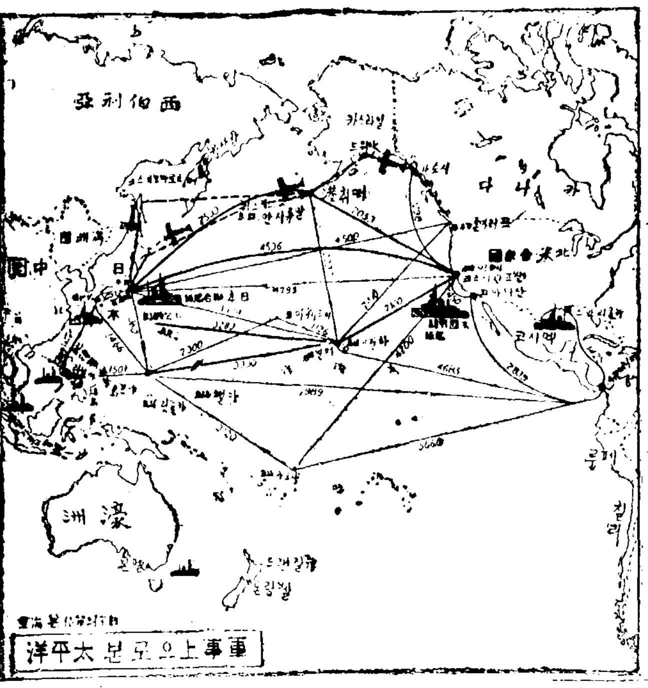
時勢上의 必要에 應하야 急速히 能率的으로 擴張하게할것

그리고 今年初旬의 陸軍機에 依한 郵便空輸에 際하야 慘憺한 失敗로 본것은 今後의 訓練에 信賴를 주었다고 믿는다 但 어떤 飛行機에 어느 心理的 影響을 준것은 아닌수없다

이다

라고 述하고있는데 目下 陸海軍의 알라스카 飛行敢行의 時節이므로 注目을 끄는것이라고 한다

【華盛頓二十二日發】 前陸軍長官 軍需局長 … 氏는 會長으로 陸軍航空研究會에서는 今日



北中

諸懸案解決次 大連서日中會議

殷同氏柴山中佐等廿三日來連

停戰協定廢棄等討議

【電通大連二十三日發】 北寧鐵路局長 殷同氏는 二十三日 午後一時半 入港의 大連丸으로 來連하야

兩者의 態度決定

廿四日부터三日間開催

【電通大連二十三日發】 二十三日 來連한 北中政權의 重要人物 北寧鐵路局長 殷同氏는 大連會議의 開催를 否定하고있으나 同氏가 大連上陸에 際하야 港外까지 出迎한것은 北平駐在武官 柴山中佐는 昨二十二日 新京으로부터의 歸途大連에 到着하야 此等事實로 推測하야 大連에서 柴山, 殷同氏間에 重要會見을 할것은 이미 疑心할餘地가 없다 殷同氏는 六月二十三日 岡村關東軍參謀副長과 會見하야 停戰協定의 全般的 廢棄問題 解決의 交換條件으로 長城線撤退를 提議하고 去七月初旬에는 北平의 北寧에서 柴山中佐와 數次會見하야 日本軍의 撤退를 提議하고 遂行後 同氏는 南京에 到하야 中央政府와 協議한 後 態度를 決定하기로하고 又柴山中佐도 七月十四日來滿 關東軍當局과 協議하야 兩者의 態度는 決定되었으므로 二十四日부터 三日間에 亘하야 停戰協定의 全般的 廢棄를 圍繞하야 最後的 折衝을 하게되는것이라 한다 石會議는 中國側의 保安隊의 改編其他問題에 對하야 成功되면 日中의 北中政權의 關係가 있으므로 北中政權의 關係가 더욱 密接하게 될 것이 期待되는 模樣이다

館山、佐世保間 無着水飛行

二十三日決行

【電通館山電話】 館山航空隊의 九一式 二號機 九式 …機는 二十三日 午前 … 館山을 出發 佐世保에 向하야 無着陸飛行을 敢行하였다

米國은 어째서

海、空軍根據地를 알류시안에 建設?

各方으로본軍事的價値 (二)

다음에 海軍의 方面으로 말하면 一九三六年末로써 滿期로되는 워싱톤 及 런던兩條約廢棄後의 事態에 備하기爲하야 알류시안 方面의 軍事根據地調査의 問題는 一層 重視하게되어 最近에는 五月五日 測候隊는 프레마톤軍港을 出發하야 日的地에 向하며 六月一日에는 掃海艇六隻으로된 第二의 測量隊가 同軍港을 出發하기로되었다 米國과 알류시안群島間의 無着陸飛行을 決定하기爲하야 六月上旬에는 哨戒艇隊六隻으로

로된 飛行艇이 米國海軍에서도 實行하여 太平洋橫斷 無着陸飛行에 成功하였다 이것에 使用되는 飛行艇은 今年一月 샌프란시스코 에서 二〇八四마일의 東太平洋에 使用할 二〇八(?)에 成功하였다

指定되게 되었다

米國의 海上國防線

이와같이 알류시안群島의 軍事的價値가 指摘되는 理由는 먼저 米國의 太平洋戰略의 作戰을 아는것이 必要하다.

太平洋에있는 米國의 海上國防線은 三線으로 成立되어 있다 當의 三點이 그것이다

一、第一線은 프레마톤軍港을 中心으로하야 파나마의 프레마톤軍港과 兩點으로한 內方線

二、하와이의 眞珠灣을 中心으로하야 北은 二千海浬 沿岸의 알류시안群島의 더치하버. 南은 二千三百海浬의 사모아 群島의 파고파고를 連結하는 中央線

三、比律賓、괌島 마닐라를 連結하는 外方線

알류시안群島는 上述한 外方線

及中央線의 北角을 이루는것이로 이것이 同時에 米國本土에 對하야 北方으로부터 襲來하는 敵艦의 防禦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알류시안 等의 北部諸島에서는 約二千浬의 距離에 있는 港이며 日本의 北海道, 樺太方面에 對하야 太平洋作戰의 攻勢하는 帝國海軍의 燃料의 供給地로서 極히 重要한 該島의 價値는 一層 增大하여진다 오직 이港은 所謂 泊地가 아니다 이것을 使用할수 없다.

워싱톤會議前 米國은 該港의 軍事的價値를 認定하야 그기에 築城하고 有力한 海軍根據地로 할 計劃이 하였다 그러데 워싱톤의 條約은 이것을 防禦制限에 두어 수으로 今日에는 겨우 若干의 海兵隊의 補給根據地로하야 極히 一部의 設備를 함에 不過하다.

米艦隊太平洋航路

以上 陳述한것은 主로 現在의 狀態를 基礎로 한것이다 그러면 워싱톤 及런던條約이 解消되는 時에는 그軍事的價値는 어떠케 되는가? 우리는 한거름 나아가서 이것도 觀察하지않으면 안된다.

米國의 海軍軍人과 軍事研究家가 여러가지 記事를 綜合하여보면 日本에對한 作戰은 北太平洋方面에 關한 大略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取하지않는가고 想像된다.

一、艦隊는 가장 安全하며 또 最短航路를 取하야 日本近海에 進出한다는 것.

二、日本艦隊의 一部를 北方에 牽制하는 것.

三、北方으로부터 日本의 樺太 及 北海道方面을 空襲하는것.

第一의 艦隊航路로는 다음의 四個를 볼수가 있다.

一、米本國의 프레마톤 軍港에서 大圈航路를 取하야 알류시안群島의 附近을 通過하든지 또는 同群島의 더치·하버를 經

進根據地로하야 小笠原島附近에 向하는 것.

二、하와이를 根據地로하야 미드웨이島의 兩點을 通過하야 小笠原島方面에 向하는 것.

三、하와이를 根據地로하야 마샬 南洋方面에 向하는 것.

四、하와이를 根據地로하야 먼저 南洋群島를 攻擊占領하고 그러한後 마닐라方面에 向하는 것.

上記四個中에서 (四)는 가장 危險하며 (三)이 이다음 가다 大부분 現在 (日本의 勢力範圍內에 있는) 南洋群島를 攻擊함에는 米國側으로서도 多大한 損害를 覺悟치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이것은 占領하여서라. (二)는 比較的 安全하나 米艦隊의 航路는 그 의 附近을 通過하므로 全然 安全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反對로 (一)은 日本艦隊의 危險線을 멀리 떠나게 되나로 安全한 點으로 보면 가장 좋으나 濃霧帶에 屬하므로 어떤 季節中에는 作戰이 不能하다.

臨時議會는 召集아니될模樣

政府는情勢推移注視

【電通東京電話】 岡田首相은 組閣後 十大政綱政策을 決定하야 連日 이를 具體的으로 立案作成하려고 各省에게 命하였었으나 一方에 各省에 對하야 政府側에 要望하고 이에 對하야 政府側에 無限한 時日을 要하는 現內閣은 이 公約을 實現하기 爲하야 臨時議會를 召集하라는 希望도 있었으나 米穀及 農村에 對한 適當한 政策은 아직 國策研究中으로서 無論 하어 通常議會에서 政策을 作成한다 하더라도 臨時議會召集의 手續으로는 어가시 臨時議會召集이 必要하다는 說도 不少하지마는 目下의 形便으로는 農村關係로 아니라 國防, 外交, 政育, 財政, 行政等 其他各般에 亘하야 根本的政策의 具體化에 努力하고 있는 際이므로 事實上 臨時議會의 召集準備는 進行하야도 것은 不可能한 情勢에 있다 特히 新內閣의 信任을 國民에게 묻기爲하야 議會解散을 目的으로하는 臨時議會召集도 憲法上 疑義있다는 理論도 있으므로 政府는 다시 民政黨側의 希望을 따라 時局의 推移에 依한 政府는 臨時議會召集에 對하여는 慎重한 態度 情勢의 推移를 보아서 決心하리라는 것이 結局 召集은 되지않을 模樣이다

國民黨第五全會

十一月開催決定

憲法案上程討議

【電通上海二十三日發】 豫備開催하려다가 延期된 第五次全體會議는 今年十一月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再次 延期치 않기를 二十三日 行政院秘書長 褚民誼氏로부터 正式으로 發表하였다 右會議에서는 中華民國憲法案을 上程討議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右案이 通過된 때는 明春三月 南京에 全國民大會를 召集하야 이것을 國民의 總意에 묻는 決定으로 되어 있다 또 大會는 그밖에

一、國民政府組織法改正案

二、西南、中央合作案

三、監察院彈劾法修正案

其他 重要法案이 上程될터이다

夕刊後市況

▲鍾紡新株 …
▲朝鮮人絹 …

最後的仲介案

廣田外相이 提示

北鐵讓渡交涉八月中旬開始

前途樂觀空氣濃厚

【電通東京電話】 廣田外相은 北鐵讓渡交涉의 圓滿成立을 期하야 二十三日 駐日蘇聯大使 유레니에게 日本側으로서의 最後的仲介案을 手交하였는데 今回의 外相案은 北鐵讓渡에 關한 滿蘇兩國의 從來主張의 中間을 取하야 極히 公正妥當한 見地에서 調整된것이므로 外相으로서는 蘇聯側에서 北鐵讓渡를 成立시키는 誠意있는限 滿洲側으로서도 異議없다고 하야 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는 매우 注目되는 바이다

【東京電話聯合】 昨年六月以來 前後十四個月에 亘한 北鐵讓渡交涉은 當事者인 廣田外相의 斡旋에 依하야 滿洲國側 第四次提案과 蘇聯側의 讓步案이 接近되어 있는 이 때 最後의 仲介案이 提出되었다 그리고 萬一 蘇聯側에 本案을 受諾할 誠意가 있는 境遇에는 日本側으로서는 이以上 仲介斡旋의 餘地가 없다고하야 그結果를 注視하고 있다 今度 讓渡交涉은 重大한 局面에 接着하고 蘇聯이 本提案에 對하야 讓步치 아니하면 交涉의 前途는 決裂의 悲觀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다 本提案이 蘇聯에 到着할 時期는 二十三日 夕刻이

은 駐日蘇聯大使의 來訪을 請하였으나로 同大使는 二十三日 午後四時 外務省에 廣田外相을 訪問, 滿洲側의 提案한 最後案에 對하야 蘇聯側의 態度에 對하여서도 亦是 相對的인것을 要求하기로 되었으나 本國政府에 照會를 求하기로 되었으나 蘇聯側에서도 滿洲國側의 最後案에 對하야 交涉成立시키어 誠意를 보이는 後에는 交涉의 最後的會談을 開始할것이며 蘇聯側의 讓歩如何가 가장 注目되게 되었다 그리고 會商地는 하르빈에서 時期는 八月中旬說이 가장 有力하다

駐日蘇大使와 外相會見內容

【電通東京電話】 廣田外相은 北鐵讓渡交涉을 하루速히 圓滿妥結시킬 目的으로서 過般來 滿洲側에 最後的意向을 求하였든바 今番 滿洲側의 意向을 斟酌하야 日本側으로서의 最後的 仲介案을 作成

한 北鐵讓渡交涉은 昨年 六月부터 國際輿論에 進行中이든바 本案을 大臣은 此際 速히 그圓滿한 成立을 圖하기爲하야 滿洲側의 意向을 斟酌하야 本大臣의 試에서 日本政府로서의 最後的仲介案을 提示하였다 本案의 趣旨는 公正妥當한 目的으로서 本案의 提出되는것이므로 蘇聯側에서도 이것을 受諾하여준다면 좋겠다

고 最後的仲介案을 提案하고 具體的 說明을 하였다 이에 對하야 유大使는 本國政府에 傳達하겠다고 答하고 今日 蘇聯政府에 打電하기로하고 雙方이 다시 同問題에 關하야 協議하기로하고 會談을 終하였다 午後五時二十分 會見을 終하였다

孫、루大統領의 會見은人事程度

重要會談은不行?

【하와이二十二日發聯合】 目下 하와이에 滯在中인 國民政府 立法院長 孫科氏는 루大統領의 하와이訪問을 利用하야 大統領의 好意에 對하야 大統領과 重要協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孫科氏의 主張하는 것은 太平洋의 平和에 關한 것이라 하나 本人은 孫氏와는 全然 不關하다고 하는것이 事實이오 石會見은 單純히 人事程度에 不過하고 重要會談은 하는것은 아니리라고 觀測된다

米로자스教授 藤井藏相訪問

【電通東京電話】 米國 예일大學의 教授로서 루大統領의 顧問中 一人인 로자스教授는 二十三日午前十一時 藏相官邸에 藤井藏相을 訪問, 日米兩國의 經濟關係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不況克服에 今後 相携하야 努力하기로 協議하고 正午 辭去하였다

辭令

稅務署 金永運

任稅務監督局事務官(七) 命大邱稅務監督局在勤 牧野秀千代
任司稅官(七) 補仁川稅關監視 …
任公立高等女學校長 補全州公立高等女學校長 …(七) 司稅官 依願免本官 中村裕

滿洲國領內에서 英駐屯軍演習

日英駐屯軍間折衝中

【北平二十二日發聯合】 英國駐屯軍의 山海關을 中心으로한 滿洲國領土內의 演習은 目下 兩國駐屯軍間에 折衝中 北平에서는 아직 外交交涉으로는 되지않었다 오는 二十五、六日頃 柴山武官이 大連會議後 歸平하기를 기다려서 正式으로 이交涉을 開始할터이나 日本當局은 이問題가 紛亂하야 深刻化하리라고는 念慮되지않는 模樣이다 英國이 滿洲國不承認에 拘泥하고 하노라 도 長城線以北이 以南과는 달라서 그獨立政權의 關係라는것은 英國軍에서도 認定치않을수 없는일 이어느 이것이 歷史的으로 解決에 方法 가지고 있다

武田長兵衛商店
突然한 ワキガと汗止めに 크림 ダモラ
小 一五グラム 六十五錢 / 大 三五グラム 一圓二十錢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 朝鮮代理店 京城府 小西新兵衛商店

設備完全な專門店として 舶來 萬年筆 アード萬年筆 一個年間保證付 金一圓五十錢以上 正堂

大阪蓄名問屋案內

鞄 ハイド製鞄把鞄 ランドセル其他各種 製造卸 伊藤保商店 大阪市浪速區元町一丁目

卸のデパート 日本百貨均一卸協會 大阪市北久太郎町 三和銀行ビルヂング

鞄革雜貨製造卸 T.K. 津田鞄商會 大阪市西成區

精米機·ポンプ 製粉機·噴霧機 (カタログ進呈) 有光製作所 大阪市西成區

春夏 帽子カタログ進呈 滿鮮向帽子品揃 河村善商店 大阪市北區空心町二丁目

人絹端切各種卸 (卸商報進呈) 津村合資會社

理髮器 金五拾錢 卸問屋 大野合名會社

軍手製造家募集 國家非常時に 軍手製造所

대극성광목

第一劇場 (大東亞電話) 明日의 結婚 全八卷 / 怪像의 秘密 全八卷 / 閃電 全七卷

朝鮮劇場 ◇ 島の娘 全十卷 / 寶屋 全卷

團成社 ◇ 日本現代 キング 三王(大王)萬歲 全七卷

本社京販

濁浪의災地

濁浪에北面大堤防缺潰
倒壞家屋만이二百戶
避難民千四百名、浸水四百町步
各地와聯絡조차杜絶慘狀

【馬山에서 特派員 李澄宰發電】 북면(北面)수리조합제방은 二十一일오후十시五분에 수위三十七척이엇던바 二十三일에 제방이 六十간이 결궤되어 三백六十정보의 전면적은 전부 침수되고 도피가옥 二백호에 피난민 一천四백명에달한다。북면당국에서 구제하고잇으나 각지와의 연락이 끊어저서 조사역시 곤난한터이므로 그외농장배정보도 二十一일오후二시 결괴되어 전멸된 상태다。

江景堤防遂缺潰
全市民總避難開始

【강경지국전보】 강경북정(北町)에잇는 제방은 六시에 이르러 드디어 결괴되어 격류가 시내로 엄습하엿으므로 비장한 사일렌과함께 전시민은 총소동을 일으키고 비교적 낮은 북정 본정(本町) 중정(中町)에는 피란자가 총동원되어 속속피란중인데 아직 부상자는 없는중이다。

萬三千罹災民中에
救助는四五千名뿐

【特派員辛駿熙發電】 전연구조의 길이없는 김해군대저면(大渚面)호수二천六백五十호 인구一만三천五백인데 지금까지 겨우구조된것은 四、五천명에 불과하다。그외에는 아직구호의 손이 미치지 못하야 우려중이다。

三禮危急

【전주지국전화】 전주군운동하면(全州郡雲東下面)에잇는 삼익수리조합저수지 제방에 틈이벌어젓는데 一천만여 출수되면 고산(高山)봉동(鳳東) 삼례(三禮) 三면이 위험하리라고한다。지금 비는 계속하야 오는중이다。

全北被害

【전주지국전화】 전북도내의피해상황은 二十三일오후五시 현재에 다음과같이 판명되엇다。
▲十一死者、行方不明三、負傷十▲家屋流失、全壞半壞三四四▲浸水家屋四、三〇〇戶▲浸水流失四萬餘町步 (內流失埋沒四五〇町步)

龜浦災民들의避難光景

大渚面浸水뽑고저
洛東本堤防을破壞
深夜에堤防물은鳴旨面에몰려
七百戶浸水로大混亂

【釜山에서特派員姜大浜四時十五分電話】 김해명지면(金海鳴旨面)에는 대저면(大渚面)침수를 뽑기위하야 二十二일오후十시경에 경남도토목과에서는 낙동강본제방의 一부를 텃으므로 대저평야에 잠겻든물이 나려쏠리는 바람에 명지면一천호의 三분지二가 침몰되엇다。정신을차릴수 없어 집웅으로 기어오르는 사람 높은 곳으로달아나는 사람들로 혼란을 극하엿는데 교통이 두절되고하야 외부에 알으켜지지않어 구제반이 도착하지못하야 식량결핍으로 대공포중에 싸여잇다。본사사하(沙下)분국원이 모험을 무릅쓰고 격랑에 배를저어 건너가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왓다

金海第二水組堤防汎濫
駕洛、金海泥海化
濁流에휩쓸린屍體七名
五千戶、三萬町步浸水

【김해지국전보】 낙동강유역의 물은 각각으로붙어서 七十一척에 달하엿다。작년대홍수때에 비하면 五촌이 부족하다。탁류는 사뭇이같이 밀려들어 드디어 김해수리조합 제二제방은 전부 범람되어 가락면(駕洛面)일부와 김해읍一부에는 물가운데들고말엇다。대저면평강리(平江里)서 탁류에 표착한 시체들을합하야 사망자가 六명에 달하엿다。가락면식만리(食滿里)에도 침입되는 탁류로 말미암아 피난하는 도중에 一명이 탁류에 휩쓸려 들어가죽엇다。오늘오전十一시부터 폭풍우로 변하야 천후가 점점험악하게되엇다。김해군은 침수면적二만정보 침수가옥 五천호에달하엿으므로 동군은 전군적으로 전멸상태이다。피난민의 생사는 실로 우려중에잇다。

軍威危急

【군위지국전보】 군위(軍威)읍내에는 二十三일오전一시경 폭우가 나리어 九시경에는 모든 하천이 범람하야 부근일대는 각각으로 수국화 되어 군내도처의 도로와 제방등이 문어저서 전답의 유실 혹은 매몰이되어 그 피해액이 막대하다。그리고 초락과 초락간에도 교통이 두절되어 조사할수없으나 도내는 침수되어 가는동이 다 주민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가구를 [illegible]

强風暴雨 再次襲來!
慶南北道를警戒하라
二十三日午後九時、仁川觀測所發表
災地豪雨는依然暴注

暴風警報

廿三일 오후九시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발표=바람이 강할것이다。남풍이 강하다。곳곳에 폭풍우가 잇을것이다。경상남도(慶南)、경상북도(慶北)을 경계하라。저기압의 중심은목포(木浦)부근에잇어 七백七十미리를보이고 동북、동으로 진행하고잇다。

◇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의 二十三일오후三시 기상예보와 현황의 말에 의하면 二十三일로 아직 남조선一대에 비가나리는데 二十二일부터의 우량으로보면 그중 우심한곳이 충청남도와 전라도방면으로서 一백미리전후이오 대개는 가는 비가나리엇다。북부조선은 흐리나 금명양일동안에 전조선은 전부 천기가 좋아질것이라고한다。

災地情形切迫으로
再次、千圓을急送
微力도不顧、本社表誠의一燈
空前、廣範圍의大慘害

三남一대의 수재의 참보를 접하자 본사에서는 즉시 시급한 금품과 약품을 휴대하고 구호반을 재지현장에 급행케하엿으나 재지의 참상은 판명될수록 실로 상상이상으로 그지역의 광대함과 피해정도의 심각함은 종래의 수재에 그유례를 보지못하는바잇다。재작년、작년、연년이 겪는수해로 말미암아 생활의 근지가 근본으로부터 흔들린 그들에게 또다시 전무후무한 이참변을 당하엿으니 그비절참절한 정황은 참으로 언어도단이다。더구나 어젯밤 이래로 낙동강연안의 재지에는 폭풍우가 다시금습격하야 천신만고、九사一생의 재민에게 최후의 一격을 나리는터로、흙물에 젖은 몸은치위에 다시떨고、놀래고 굶주린끝에 기진맥진이되어 사선에 방황하는 동포가 천으로 만으로 헤아리는 참경이다。본사에서는 이미 五백원을 보낸바 잇엇거니와 그것으로는 응급에도 오히려 부족한바 잇어 다시 현금 一천원을 재지현장에 급송하기로 하엿다。

本社第三救護班
錦江災地로急行

三남一대의 재민을 구호하고저 경상의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구호반 제一대와 전남의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구호반 제二대를 즉시 출동시키엇다 함은 기보와같거니와 금강(錦江)의 제방이 결궤됨을 따라 논산(論山) 강경(江景) 구룡(九龍)평야가 도도한 탁랑에 휩쓸리어 피해가 자못 참혹하다는급보를 접하고 본사에서는 이에 다시 구호반 제三대를 현지에 급행케하엿다。
◇救護班第三隊 ▲金哲圭 ▲李友一 ▲李秉雨 ▲李炳輝

昌原災民六千名
迫間農場은水國化

【마산지국전보】 창원(昌原)군내홍수에 의사자 진전면(鎭田面)一、북면(北面)에 一、향방불명이 구산면(龜山面)에 一로 대산(大山)、북면、동면(東面)등에 피난자는 합해서 약六천명에달한다。二十二일오후七시경에 낙동강수위는 三十七척三촌에 달하는데 가옹북면(北面)관내에 도궤백七十五호、반파五十호、동면(東面)에도괴二十三호、반파二十一호에달한다。동면에는 제방이 네군데나 결괴되어 박간(迫間)농장은 바다로 화하야 경관과 군인이 급히 출동하엿다。아침二시三十분 마산(馬山)에발동기선을 파견한채와 보一는三척으로 수송하고 마산중포병대에서는 대기중이다。현재까지의 총우량은 五백八미리로아침二시四十분부터 폭풍이 불기시작하엿는데 웅천(熊川)七十호、[illegible]二十호、창원(昌原)六호三十정보의침수가잇엇다。마산지국에서는 二十二일에 대산면、二十三일에 북면에 구호[illegible]출동시켯다。

江景一帶의
水害狀況

【강경지국전보】 강경시내서정(西町)의 제방이二十三일 오후七시 三十분에 드디어 동五十분 [illegible]에는 황금정(黃金町)제방이 역시 문어저 제방공사에 착수햇든 일도 모두 집어치고 모두들 피난할 하느라고 시내는 흡사히 전쟁터같이 되엇다。그런데 二十四일 오전 二시가량 조기(造[illegible])에서 二十三일밤동안의경과가대 다우려되는바 이五강경시내는 三개소의 제방등궤로 인하야 습래하는 물은 바야흐로행할하야 一만五천의 강경시민의 생명이 위기일발의 형편에 빠저잇다。

京釜線不通으로
赤囊六百個積滯

남조선지방의 대홍수로 경부선불통이되어 [illegible] 이 북가는우체물이[illegible] 에서는 죽게 [illegible] 판(下關)간의 항로편(就航)으로 연락을 취하기로되어서 二十二일부터 이것을 실시하엿든데 종래에 비해서 약간의 지연은 면할수 없게 되엇다。또 일본내지로부터 오는 우편물(郵便行囊) 약六백여개를 실은 신라환(新羅丸)이 二十三일아침 부산(釜山)에 입항하야 송게파 하륙의 일들을 상륙시킨 다음 곧 여수(麗水)로 항로를 변경[illegible]할 것이다。그리고 항공수편으로의 경성(京城)대판(大阪)간은 목하의정황으로 [illegible] 남북어느곳에도 지장이 없으나 일본내지행의 항공우편(航空)은 [illegible] 항공회사방면도 역시 현수를 [illegible]

飢寒에우는
避難民
錦江流域災民

【강경지국전보】 금강은 각각으로 증수되어 二十三일 오후三시 八미터이나 되엇다。논산(論山)파 강경(江景)평야와 부여군세도면(扶餘郡世道面)평야가 모다 一졸로 수국화가되고 물우에 표류하는가옥이 五十호나되는 [illegible] 저잇다。

水難의現場엔
鐵道復舊 用意萬全
東奔西走의三코스도列無辭
◇吉田鐵道局長談

이번수해에 대하야 철도당국의 피해는 막대하야 예상도 허하지 않는데 부산역에는 二천五백명이 이리역에는 七백명이 오도가도못하고잇다。이에대하야철도국에서는방금낙동강의 감수를 기다려부산철도사무소(釜山鐵道事務所)는 물론이오 용산철도국 공무과(工務課)를 총동원하야 복구공사에 착수할터인데 부로하야 전조선의 사무소를총동원하야 복구공사에 착수할터인데 아직감아서는 상당히 막대한 피해인으로 이대책으로 우선 길전(吉田)철도국장은 다음과같이 수재대책국장회의를 열어 [illegible] 자단에게 말하엿다。
수해현장에는 속히 전여해서 방금[illegible]차를 준비하고 인부기타를대구이쪽에 준비하야 낙동강감수를대기하고잇다。
우선부산과 이리에 들어가처잇는여객三천여명을 우선 수송하여야겟는데 그양은 어려하다。
一、철도성으로부터 기선[illegible]선신라환=[illegible] 빌어가지고 여수나군산으로수송하려 하엿으나 후담선이 또 [illegible]이라 [illegible] 또 군산으로부하 [illegible] 사용[illegible]
二、또하나는 부산 [illegible] 간 자동차선로의 [illegible]를 조사시켜 이곳으로도 다소여객을 시켜가하며
三、또하나는 낙동강수해현장에 감수를 기다려 [illegible] 를 취할 [illegible] 몽차나 또는도보연락을 [illegible] 예도리가 없지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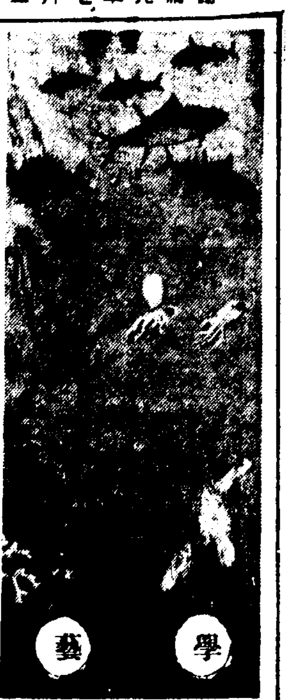
千七百戶中에
三十戶만이救出
罹災民만八千餘名

【榮山浦에서 特派員 金[illegible]發電】 나주군(羅州郡) 영산포의피해는 더욱심한것이 판명되는중인데 전지가 一천七백호중에 침수되지 않은것이 겨우 三十호에 불과하야 영산포시가 전부가 침수되어 이재민은 八천여명에 달하므로 영산포시가는 조금높은데는 피난민이 쇄도하야 기중상은 목불인견의 상태이다。
이재민중에도 주최중[illegible]가장 중[illegible] 전부유실한 一천五백여명은 보통학교와 면사무소 등산동장(東山[illegible]) 거랑[illegible] 면가에 수용하야 밥[illegible] 중이다 영산포는 十六일 [illegible] 거의비와 三개년의 세월로 [illegible] 공되어 남조선지방에 제一을 자랑하고잇든바 [illegible] 계속된 류를 따다 다리 [illegible] 四十척의 [illegible] 이 생겨으므로 [illegible]
[illegible] 대는 [illegible] 아니라 [illegible] 되지않을가 [illegible] 大일동안 계속한 후우에도아무 일없으므로 영산강의 제방은무사히지내엇다 二十三일부터 폭풍우 도시작되엇으므로 크게 재방의무려가 [illegible] 중이다。
남은 한 부시구[illegible] 처의이재민들은 [illegible] 회사의 [illegible] 적의 [illegible] 을 드리워까지 [illegible] 기대하여 바랏다 한다。

휴지통

三남[illegible]의 수재 [illegible] 백년 몇十년 피란으로 [illegible] 영소에 [illegible] 이런 재변은 十번이나 二十번 에 한번 [illegible] 득、연달 세째로 겪는 낙동강 연 안、하늘이어 [illegible] 나니까 [illegible] 감금이 서늘하기를 [illegible] 복하라 [illegible] 그 [illegible] 생겨만 해도 가슴이 [illegible] 부선 [illegible] 의 [illegible] 에서 [illegible] 도 복구[illegible] 예방 [illegible] 그 참상을 상상하고도 [illegible] 아니나。

ClibPDF - www.fastio.com



文學에잇어서의客觀
新心理主義에서問題를取하야
尹鼓鍾
【一】

一

客觀에 對한 反抗인 主觀主義는 無意識下的 潛在意識의 探求에서 그 [illegible]을 發見하엿다. 主觀的 創作은 [illegible] [illegible]의 幻想으로 [illegible]에 [illegible]하게 이르렀다. 心理主義小說의 [illegible]은 이 事實에 [illegible] 우리에게 보여주다. 過去 數十年來의 [illegible]的 眼에서 보지못한 새로운 文學傾向으로서의 心理主義文學의 形態에對한 好奇의 感보다 우리의 興味는 그 文學內容에 잇다.

「[illegible] 프루―스트」의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의 文學이나 「쪼이스」의 文學에서는 期待하지안엇고 過去에도 하지못한 文學的 [illegible]을 發見하엿다. 心理狀態의 [illegible]한 主觀性의 表出을 그 [illegible]로하는 이와가튼 心理主義文學으로서 이 派의 理[illegible] 客觀에對한 主觀의 [illegible]을 主張하려고하엿다. 主觀世界를 客觀보다 [illegible]大한 [illegible]으로보고 根本的 世界로보려고 하엿다.

이와갓흔 主觀으로서 客觀에 對하야 [illegible]이안이고 主張하는것은 決코 新心理主義文學에서부터 [illegible]된것은 아니다. 世紀末파 世紀初를 中心으로 [illegible] [illegible]文學 [illegible] 主觀의 [illegible]를 남기고 表現主義文學에서 [illegible] [illegible]에서의 [illegible] 云云한 [illegible]을 對하여 왓다. [illegible] 文學으로서 新心理主義文學이 그前의 文學보다 特異한 點은 新心理主義의 文學內容이 意識下의 潛在意識을 細密하게 描寫한데 잇다. 主觀主義文學의 一般的 表現主義의 文學 內容이 十九世紀末의 自由奔放한 主觀을 [illegible]시키는 浪漫主義的 [illegible]가 잇슴에 反하야 잘은主觀主義的 新心理主義의 文學內容은 特定한 一個人의 意識下에 潛在하야 [illegible]된 [illegible]을 [illegible]하는데 잇다.

이러한 [illegible]을 [illegible]하게 [illegible]하야 現在의 新心理主義文學이 表現主義와 現在의 [illegible]主義的文學보다 [illegible]에 [illegible]하엿다. 그 偉大한 [illegible]의 [illegible]인 新心理主義文學이고 [illegible] [illegible]에 [illegible]的으로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에 根本的 存在理由를 求하엿다.

一個人의 意識下에 潛在한 [illegible]과 現在의 [illegible] 記憶을 [illegible] [illegible]의 潛在意識의 [illegible]에 依하야 一文學的 內在化 시키는것에 [illegible]의 「潛在意識說」과 一 [illegible]하는 點이 잇다.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 新心理主義의 [illegible] 文學의 [illegible]的에서 主觀이 [illegible]하야 [illegible]的 [illegible]가 可能하다는 主[illegible]를 强化시킨다.

이것에 過去의 主觀主義文學보다 一層의 意味가 잇는 點이 잇다.

이와같이 新心理主義文學이 主觀에 [illegible]하고 客觀을 [illegible]하고 [illegible]的 [illegible]的 [illegible]으로 하여도 文學的으로 完全한 成果를 [illegible]하지 못하것은 숨길수 없는 事實이다.

「쪼이스」의 傑作이라는 「유리시스」는 主觀가 [illegible]한데 作品全體의 [illegible]이 [illegible]하고 [illegible]한 [illegible]에 [illegible]되어 [illegible]하여 [illegible]的 [illegible] [illegible]받은것은 有名한 事實이다.

그뿐아니라 [illegible] 「[illegible]크」의 「人間喜劇과 [illegible]」되는 「[illegible]―스트」의 「[illegible]」을 찾어서는 [illegible]의 小說이 精神界의 [illegible]를 찾어보고 그러엿다고 이 派에 [illegible]이 떠날지마는 客觀的으로 [illegible]할수없는 不可解한 [illegible] 아모리 理論的으로 [illegible]하여도 否定할수없는 事實로 되어잇다. [illegible]로서 그것이 果然 [illegible]되고 [illegible] 作品이고 아닌것은 [illegible]의 歷史的 結果를 보지않고는 알수없지마는 現在에 잇어서 客觀的으로 생각할때 決코 좋은傾向은 아니다. 人間[illegible]의 流動的 [illegible]를 [illegible] 潛在하엿든 過去의 [illegible]가 [illegible]되고 人間의 性格이 아닌 人間의 心理的 [illegible]한 內部[illegible]의 [illegible]的 [illegible]을 心理主義文學이 [illegible]하고잇다. 忽然 過去에 잇어서의 客觀에 [illegible]하고 [illegible]的인 [illegible]에 停止한 客觀[illegible]文學의 反動으로 心理主義文學이 一種의 [illegible]的한 [illegible]下에 主張되고 [illegible]된다면은 意味잇는 일이다. 그러나 心理主義文學의 客觀의 [illegible]이 없어 이없고 [illegible]한 [illegible]의 [illegible] 新心理主義文學이 未來文學에 [illegible] 片的[illegible]을 미신 文學에 不過할것을 [illegible]하지 안을수없다.

客觀을 [illegible]하는 [illegible] 新心理主義文學이 未久에 現在와같은 一般의 興味를 [illegible]失하고 沒落하야 비릴것을 [illegible]하게 된다.

[illegible] 文學이라는것이 作家의 [illegible]性을 通한 客觀의 再現이 잇어서 客觀을 喪失乃至 [illegible]하고는 文學的 延命이 不可能한 때문이다. 過去에 잇어서 心理主義文學같은 客觀을 [illegible] 絶對에 [illegible]한 文學이 없지 않엇지마는 그러한 文學은 歷史上에 [illegible] 存在를 [illegible]기고 [illegible] 結果가 不可能하엿다는 [illegible] [illegible]家보다 [illegible]에 [illegible] 事實 [illegible] 作品에는 [illegible]이 [illegible]되고 잇다.

張赫宙氏出版記念

【대구】 대구에서는 이상화(李相和) 최화수(崔華秀) 기세형(奇世衡) 세씨의 발기로 장혁주(張赫宙)씨의 출판기념회를 지난 [illegible] 오후 [illegible]시부터 대구 본정(本町) 대동식당(大東食堂)에서 개최하엿는데 참석 二十여씨로 대구로서는 처음잇는 의미잇는 [illegible] 성황리에 폐회하엿다한다 (사진은 동회광경)

故鄕을찾는무리
夏街漫步 (2)
文、畵 崔永秀

STOP―。
GO―。
―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
―큰덩크、큰덩크、큰덩크。
―[illegible]입니다。
―와―와―와―와
―[illegible]
―「고무라[illegible]」의行列―
××行列車의出發十分前―
―차레차례로―。
―이놈아 떠어넘지 말어라―
―쿵쿵쿵쿵쿵쿵。
―떽―。
―콱콱콱콱콱콱。
―와―와。
―쉬쉬쉬―

×

지금 거리의 [illegible]은 停車場으로 쏘이고잇다 너희들이 알면몰래도 내가아니면 故鄕을 못가고 [illegible] 쏜살같이 [illegible] 쏘이고 잇는것은 停車場의 滿員의 [illegible]이다。

百、千、萬、十萬―[illegible]의 무리가 [illegible] 아들이―어머니와 [illegible] [illegible]이 [illegible] 서잇다.

―故鄕을 그려하는 무리의 示威行列이다。休息의 歡喜에서 [illegible] [illegible] 아오르는 躍動이다。

그들의 故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누이、동생、아저씨、조카、사랑하는 [illegible]까지가 故鄕에있다。故鄕이란 그들의 思想의世界요 愛情의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이다。無限大의 [illegible]가 거기에잇고 最高度의 安策이 거기에잇는것이다。

저 한사람 한사람이 때려지는 곳마다 三四人 五六人의 家族이 나와서 마지할것을 생각해본다。

―거기에는 팔다리를 걷은 農夫의 아버지도 잇을것이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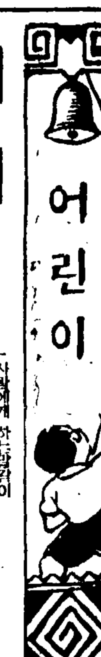
×

사람이 [illegible] [illegible]이지 [illegible]가 [illegible] 사람을 잡아먹는 [illegible] [illegible] 사람이 [illegible] [illegible] 아우성을 친다. [illegible] 자리가모자라서 아단이 나는 모양이나 [illegible] 도자리를 [illegible] [illegible]기 [illegible]도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이 [illegible]것이다.

―「[illegible]」이라는것 보다 더 무서운것이 무엇일까? 人生―[illegible]의 [illegible]間―人生列車는 지금 [illegible]의 軌道를 滑走한다。

×

저물어가는 黃昏의거리!―한창 [illegible]고 열후―四十日[illegible]의 期約하고 떠나는 學生들의 발자국이 거리에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다. [illegible]人인 [illegible]만이 [illegible]



동화
나비와꾀꼬리
(四)…… 李定鎬

[illegible]을 내어다보든사람은 얼굴상을보이는 [illegible]소녀엿습니다. 꾀꼬리와 나비가 나란히 안저잇는것을보고 반가워하면서 마치 반가운 사람이나 만난듯이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며 사람에게 한듯싶 생각이

「아이그 고마워라 꾀꼬리도 나비도 왓구나! 창수가 너의들을 어떠케 보고싶어 햇는지 모른단다」

하고는

「에그 창수가 보게 방에까지 들어왓으면 좋겟만……」

하엿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그소리를 듣고 [illegible] [illegible]서 방으로 들어갓습니다. 방이래야 좁다란 한간방인데 [illegible] 어린사내이가 [illegible] [illegible]한 얼굴에 [illegible] 누어서 잠이 든것같기도 하고 [illegible]―간얼굴에 [illegible]하고 누어서 잠이 든것같기도 하엿습니다.

「창수야 눈을 떠보아라 꾀꼬리와나비가 왓다」

하면서 소녀는 몸을 가만히 흔들어 깨웟습니다. 꾀꼬리는 부수리를 간게내여 재미잇고 씩씩하게 「꾀꼴 꾀꼴 꾀꼴꼴……」

하고 노래를 정성것 불럿습니다.

나비는 그노래에 장단을맞처서 재조껏 고운게 춤을 [illegible] [illegible]서 [illegible]어린이의 자리를 에워 싸고 빙빙 돌앗습니다. 그아말로 세상에서 들을수없는 [illegible] 노래(音樂)요 [illegible] 춤(舞蹈)이엇습니다.

거시[illegible]하게 [illegible] [illegible] 어린이의 무든 잠잠이 그게 더지면서 생기가 나면서 소소며 도라난 이든 나비를 따르고 [illegible]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illegible] [illegible] 잇엇습니다.

꾀꼬리와 나비는 [illegible] 재조와 정성을 다하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엇습니다.

그러자 [illegible] [illegible] 어린이의 눈은 [illegible] 생기가 나게되엿습니다.

도라오더니 [illegible] 지나도록 [illegible] 보지못한 [illegible] 그의 [illegible]에도 [illegible] 보이기 시작하엿습니다.

그정[illegible]고 나비와 꾀꼬리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와 [illegible]게까지 노래와 춤을 추엇습니다. [illegible] 서자고 [illegible] 또 방에 [illegible]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하엿습니다.

어린[illegible] [illegible] 나어지고 [illegible] 날이 새로이 [illegible]엿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그이튿날도 또 그이튿날도 [illegible] 지엇고 노래와 춤으로 병든소녀를 위로 하엿습니다.

이러케 [illegible] 지나자 [illegible] 아주 [illegible] 병이나 어서 [illegible]의 [illegible] 잡고 [illegible] 도가서 꾀꼬리와나비와 자미잇게 [illegible]수잇게 되엿습니다. (끝)

奴隷 (一)
週間短篇
李箕永

一

「어보! 고만 좀 어러나우。혜가 하[illegible] [illegible]이 [illegible]어오? 베도안고[illegible]가…… 참, 꿀 [illegible]하데! 저러구도 또, 밖에를 나다닐셈이가……」

아해의 목소리가 잠결에 어렴풋이 들리는 바람에 명수(明洙)는 정신이 펄쩍나서 귀를 기우렷다. 신천[illegible] 어린애를파 잔소리를 피우는아해는 그동안에 발을 먹여서 내보냇는지, 아이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illegible]지않는다. 살림이 가무해갈수록 아해의 잔소리만 늘어간다.

「고스 시수를햇나?―잠에를 어떠케잇는지 도무지 모르겟는걸! 그런데, 눈두덩이 웨아잘가?……」

눈두덩만 아프줄 알엇던다. 사차 정신이 도는대로 입맛이 써부무하게, 어디 아파보려가 없다. 누구랑 싸움을 햇든셈인가. 못매를 맞엇든셈이가, 그러나 암만생각해보아야、그런 기억은 나지않는다. 누구나 정신[illegible]이 [illegible] 에、그이는 [illegible]생각해보면 [illegible]기억[illegible]이 어[illegible]엇든[illegible] [illegible]리파거에 신수하든셈[illegible] [illegible] 연하중에도 [illegible]시 [illegible]이 [illegible] 그러하고 제[illegible] 누구한데 [illegible] 정갈에서 누구[illegible] 없어 이사람 저사람의 눈치만 보는수가 [illegible]다. 지금 명수도 갑에 자기가 어떠케하고 돌어온것을 차아 [illegible]수도없어서 아해의 눈치만 삶피다가 경대속으로 우선 자기의얼굴을 비처보앗다.

의레[illegible] 눈두덩이 발을빛이 내맘바른편 눈두덩이 [illegible]이 [illegible]이 부엇다. 아해는 [illegible]엿다가 [illegible]

「[illegible]」

명수는 입맛을 무어번 쩍쩍다시고 다시 [illegible] [illegible] 처량히 쳐다보앗다. 여기저기 낙 [illegible] 어지럽이 [illegible] 신[illegible] 내문대가 보기 쉽게 [illegible]엇다。

「야웃은 웨?―오늘은 이렇군않소!」

아해는 어[illegible] [illegible] 마저게서 [illegible] [illegible]야 좃지않소!」

명수는 [illegible] [illegible] 처마러서 안해를 노려보다가, 별안간 머릿속에 [illegible] [illegible]에는 돈전 명씩 [illegible] 보고 [illegible] 부래시。

「당신 돈 고냇소?」

「돈은 웬돈?」

「그럼 어디갓서、십원 한장이 잇엇는데……」

이렇게 [illegible] 안해는 발연[illegible]하며、목소리까지 떨려나온다.

그리고 [illegible]에 사내[illegible] 거보며

「돈이엇서야 고내지…… 잘뭇군? 그러지않아도 [illegible]게 [illegible] 사람을 [illegible]이고 조진기에 뒤저보앗는데…… 돈이 어디잇어? 아주 [illegible] [illegible]어먹고 할[illegible]이 없더니까…… [illegible]」

「[illegible]」, 그거왜 [illegible]수, 마저까먹고 오지―」

안해는 고만이 [illegible] 나종에는 [illegible] [illegible] 나이[illegible]

「……」

명수는 돈이없어지것은 의외엿다。그래서[illegible] 무에라고 대답하[illegible] 이없어서 다만 입맛만다시고, 그대로 드러누엇다。

드러누엇다。[illegible] 눈살에、별안간 소낙비가 쏟아지듯이、별안간 안해의입에서는 또 [illegible]

……

「아이구, 당신도참、[illegible]」

나자가 [illegible] [illegible] 집 [illegible] 새 [illegible]이 [illegible] [illegible] 사람구실으로 [illegible] [illegible] 끌고도라[illegible] [illegible] 좀 [illegible] [illegible] 한쪽만 [illegible] 생겨도 도수、무는만 생겨도 술이나、술취하고 [illegible] [illegible] 당신부모를처 주엇소?…… [illegible] 찾지긋지긋해 [illegible] 주게서, 하루 한날 아니고…… 집세는 [illegible] 마다 [illegible] 양식파 나무도 [illegible] 지긋지긋해

[illegible] [illegible]데, 당신은그래어떠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명수는 어제그믐날 [illegible] [illegible]라고 [illegible]에서 [illegible] [illegible] 반엇다。[illegible] [illegible] 이십오원이 [illegible] [illegible]까지 [illegible]수가없어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미리잡아쓰것을 [illegible]하고보니 겨우[illegible]것이 [illegible]이엇다

거기서 [illegible]가가의 외상[illegible]이 천저[illegible] [illegible] 갑고나니 [illegible]이 십[illegible]이엿다。그는 [illegible]을 뒤에 [illegible] 따라[illegible] [illegible] 진으로 [illegible] ××신[illegible]사 하예부기자로잇는 [illegible]가 지나면서 다짜고짜 [illegible]으로 끄는바람에 끌려갓다。

명수는 다소 [illegible] [illegible]엿다。주머니에 [illegible] [illegible] 만 미[illegible]가 [illegible]이엇다。그러나 하[illegible] [illegible] 한장은 비장(秘藏)해 [illegible] [illegible] 깨[illegible] 그[illegible]에 어[illegible] [illegible] 유이지 그[illegible] 하도록 [illegible] [illegible]다。―그는 도모지 어디로 도라다니며 술을[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언제어떠케 집으로 도라왓는지 전혀 [illegible]이 기억이나지안엇다。

(挿畵 李象範)

今日프로 火 JODK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日用品時勢 京城府[illegible]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俗謠 (一)[illegible](二)[illegible](三)漢江水打鈴(四)방아타령(五)梁山道 白牧丹 金一朶紅
▼零時四十分 뉴―스
▼自一時 至六時三十分 野球試合實況、全國中等學校野球大會中部豫選 (後一時) 仁川商業―龍山中學 (後四時) 元山中學―京城工業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四時 뉴―스、[illegible]紹介事項
▼六時三十分 童話 [illegible] 成俊[illegible]

夜間部

▼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illegible] [illegible]([illegible]) 申[illegible]
▼七時三十分 뉴―스、天氣豫報
▼八時 婦人講座 帶下症과腹痛 (二) 京城府立府民病院婦人科 科長 尹泰權
▼八時三十分 獨唱 (一)봄이라봄바람…[illegible] (二)海邊의노래…成田爲三作曲 (三)하와이노래…하와이民謠 (四)[illegible] (五)[illegible] (六)[illegible] [illegible] 리에진 [illegible]의노래…비―그너作曲
▼九時 合唱과管絃樂―新交響樂團 [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東京리―다―의라인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山本直忠
▼九時三十分(東) 時報
▼九時三十一分 [illegible] [illegible]
▼十時 뉴―스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第一放送

▲午前六時ラヂオ體操▲六時三十分(大) スポーツ講座 陸上競技[illegible] [illegible]▲七時 ラヂオ體操▲午後零時五分 小唄▲午後二時 家庭講座 [illegible]に就て(京城公立學校醫 [illegible])▲六時(東) うたのおけいこ▲六時二十五分(東) 講演 防空[illegible]の必要(陸軍[illegible]中將 [illegible])▲七時三十分(東) 講演 休暇中における學生の[illegible]に就て▲八時 長唄 [illegible]▲八時三十分(東) [illegible]

明日프로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午後零時五分 俗謠 (朴山紅 李正五)▲零時四十分 뉴―스▲一時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野球大會中部豫選(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四時 뉴―스 [illegible]紹介事項▲六時三十分 童謠(少女合唱)▲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 [illegible]▲七時三十分 뉴―스 天氣豫報▲八時 京城의[illegible] 全國中繼 朝鮮[illegible] [illegible]吹奏[illegible]▲八時二十五分 [illegible]雜歌 [illegible] 朴山月▲八時五十五分 [illegible]▲九時三十分(東) 時報▲九時三十一分 歌曲 [illegible] 李月色▲十時 뉴―스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新刊紹介

▲基督申報 七月十八日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申報社 振替京城三〇八六番
▲基督申報 七月十一日號
▲農民旬報 七月十日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府[illegible] 農民旬報社 振替京城一四三六一番

律動遊戲講習盛況

조선보육협회(朝鮮保育協會) 주최본사학예부 후원의 제三회 하기[illegible] [illegible] 지난 二十三일 오전 九시에 시내 정동배재[illegible]강당에서 회원 七十여명으로써 성대히 개강되엇다. (사진은 개강식광경)

滿洲産業視察

徐鵬鍾

一、머리말

日本과 滿洲와는 今日에 잇어서 軍事的 政治的으로 到底히 相離못할만한 密接의 關係를 맺고잇는바 如斯한 聯結을 生케한 主因으로는 勿論 兩者의 經濟的關係라고 하지안을수없을것이다. 日本이 滿洲의 經濟事情에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 이것을 自國의 經濟와 不可分離的으로 結合하야 그 萬般調停에 全國力을 不惜하는것은 決코 偶然事가 아닌것이며 더욱이 國際經濟가 尖銳化한 今日의 經濟的 孤立에 陷한 日本으로서는 차라리 當然한 進出이라고도 할수잇겟다.

그러므로 滿洲産業發達의 可能性은 直接日本産業將來에 莫緊한 關聯이 될것이며 따라서 大陸에 接壤하고잇는 朝鮮半島는 그 運命이 滿洲와 緊密되는바가 一層深切한바가 잇게된다.

更히 壤土相接이라는 地理的關係以外에도 長久한 歷史的關係와 아울너 多分의 共通點을 가지고잇는 朝鮮半島는 內地産業經濟의 緊縮과 正比例하야 더욱 더욱 滿洲에對한 關心을 深刻하게할것은 自然의 勢라고 하겟으며 또한 滿洲認識은 當面의 急務가 아니면 안될것이다.

近來에 朝鮮實業家들도 現地視察이 만흔 說據이니 매우 喜賀할일이라하겟으며 압흐로는 一步를 進하야 滿洲經濟 認識이 普遍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기에서 筆者는 滿洲産業考察上 直間接으로 가장 關係가 깁흔 事情만을 槪略히 摘記하야 그 代表的 事實을 提示함으로써 滿洲의 [illegible]을 彷彿시키려고 예컨으며 最後에 總括的으로 愚見을 述하기로 한다.

二、鴨綠江과企業

朝鮮 滿洲의 境界로서 白頭山에 源을發하야 延延 二百餘里 黃海로 흐르는 鴨綠江은 左右 兩岸에 約二百四十萬町步의 大森林面積을 가젓다 하며 其蓄積은 實로 十億尺締라고 하니 年二百萬尺締乃至 三百萬尺締쯤 代採되여서야 아무렷치도 않을것이 오히려 當然하다 하겟다 (一尺締는 一尺四方長十二尺)

流筏의 盛期는 每年六、七、八月인데 이三個月間에 約六千臺以上을 輸하다고하다 (一臺는木材參百本乃至參百五十本으로組成)

運送으로서의 鴨綠江은 單純히 木材의 流送에 止하지안코 上流로부터는 大豆, 豆粕, 高粱, 包米, 小豆, 山繭等의 農産物을 流下하고 아래로부터는 綿絲布, 鹽, 麥粉, 石油, 燐寸, 其他生活必需品을 上送하나니 運送의 鴨綠도 利用價値가 잇다할것이다.

天然의 大森林과 豊富한 江水量은 必然的으로 大企業을 나앗으니 王子製紙株式會社新義州工場, 富士瓦斯紡績株式會社安東工場, 鴨綠江製紙會社, 鴨綠江製材無限公司等의 存在가 如實히 고잇다.

王子製紙會社新義州工場이 消費하는 水量이 京城全市 消費量의 二倍라고하며 王子製紙와 鴨綠江製紙가 製紙原料로新用하는 木材가 鴨綠江流域全産額의 二分의一이라고하고 이事實만을 照하야도 鴨綠江은 近代的企業에 二重三重의役割을하고잇다함을 推測할수가 잇을것이다.

王子製紙工場에서 原木으로부터 紙物―荷造까지의 全工程을 보앗는바 此는 東洋에 잇어서는 鴨綠江에만 잇는것이고 日本內地에서도 原木으로부터 「찌파―」가되기까지의 四、五工程은 할수업다고하니 鴨江과 企業의 將來에對하야 더욱 介意할바가 잇다하겟다 (계속)

産業

霖雨와 濃霧로 ―各地農作物被害莫大―

咸南에도被害莫大

【함흥】 함남일대지방은 요즘동안 한기후와 농무로 보리, 조, 감자의 대부분은 부패하여버리고 작년도에도 흉작되엿든 장진군의귀리(燕麥)는 금년에도 북면(北面) 동하면(東下面) 一부에 귀리송기와 잎에 농무이뭐여 [illegible] 피해가많다한다.

載寧農校에서 農産物試食會

【재령】 황해도 재령 공립농업실습학교(載寧公立農業實習學校)에서는 종래에 농무과장이 결입하야 지부상 [illegible]이아니라 일반은 유감으로 생각하야오든바 동교에서는 금년도부터 교장 전중보(田井甫)씨가 취임하야 가지고 면목을 일신하는 동시에 지난二十일 오후四시 동교내에서 학부형과 유지를 초청하야가지고 농산물시식회(農産物試食會)를 개최하엿다는데 동교는 장내가매우성황하다고한다.

城津郡一帶도 今年凶作難免

【성진】 함북성진군(城津郡)일대는 작년도의 농작물이 대풍작을 이루러습으로 금년에도 예년의 풍작을 예기하엿든바 一개월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일우가 내리는 상태인데 오늘까지 끼여 기후가 차서 밭곡이 매우 불호하야 누가 누르러가며 부패까지 하는곳도잇어 일반농민은 극도로 수심중이라한다.

慈城도長霖 農家는除草困難

【자성】 지난八일 폭우에 평북자성(平北慈城)지방에서는 사래에못처 압시와 사바十명 방수에 의사三방 도합 세생명을 처참이 도 빼아서가고 기축들에 거대한 손해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끼치고도 일향비는 끝이지 아니하고 해―뜨는날간 비가나려 장마라는데 지난十八일 本日날에도 소낙비가 여러차례나 나리여 기승을맥수가 도제하야 一반농민들은 향의 흉작을대단히 우려한다고한다.

載寧信川兩郡主催 植物採取講習

【재령】 황해도재령(載寧)신천(信川)양군주최로 하기휴가를 기 [illegible]

義城郡東洞共同耕作光景

하아오는 二十三일부터二十五일까지 三일간 황해고등장수사납원사(妙香寺)에서소년채소강습회(植物採自研究會)를개최하다는데강습회원은六十명에달하다고한다

寧邊産組繭價引上

평북녕변군(寧邊郡)은 해마다 잠견(蠶繭)만여석을 생산하는지방으로 七천석가량은 자가용으로 제사(製絲)나 직조에 소비되고三천석가량은 매매되어 외지로 수출되든바 금년에는 잠견가격이 대폭락되어 생산비 三분一에 불과하여 양잠가에서는 잠견을파시 않는바개로 지금까지 공동판매소에 매매되엿을검이 一반제사가와 직조파할뿐아니라 잠견은 사지못하여 작업을못할 상태에 빠젓다고한다 이에 동정한 녕변산업조합당국에서는 조합자체의 손실은 불문하고 직소가인 조합원의 편의를지모코저 오는二十五일부터 잠견가격을 현시세에(一貫當) 五十전식을 인상하여 사다고 한는데 장소는 남신현(南新峴)나송(南松面) 평(坪)등 세면이라고 한다.

秋蠶奬勵意味로 蠶種價格引下 ―枚七十五錢으로協定―

【신의주】 봄 고치값이 너무싸지어서 농촌 양잠가들은 낙망하야 가을고치에 대하여서는 일반은 주저하는 감이 잇으나 四월파九월소소잠은 마친 농하기(農閑期)이므로 대개는 소립(掃立)하리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야 평북도 농무과에서는 잠종 가격을 [illegible] 점이 심히하야오하다는데 [illegible] 사용케될것이라한다 그광산은 품반일마는 공영조(共榮組) 운송집에서는 운반한우차(牛차) 준비에 四방으로 분주중이라한다

密陽에大鐵鑛發見 埋藏量一千餘萬噸

【밀양】 경남밀양(密陽)에는 근일에 큰철광이발견되엿다 그광산은 밀양읍교동(密陽邑校洞)으로부터 부북면(府北面) 상동면(上東面)一부까지뻗치엿는데 그철광(鐵鑛)의 매장량(埋藏量)은 一천만톤(一千萬噸)이라는바 그질함유량은 六파센트로 七파센트이며 품질이 극히양호하다하야 하본더래광(榎本德太郎)씨의 에의하면 금七월팔일부터는 매일三백톤예산을 파서 매면 팔번(八幡)제철소에 로 [illegible] 원료 [illegible] 우에는 잠종가격은 一매 五十전이된다고 한다.

洪川金鑛業旺盛

【홍천】 강원도는 유래 광산국으로 유명한데 이미다아는바어니와 천하명사의 광산은 경치좋기로 이름이 낫으며 야산에는 무진장의 황금이 무처엇으므로 이름이 낫다 한다 강원도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서도 홍천(洪川)과 영월(寧越)이 금광많기로 제一이며 석유(山峴)에 금광(金鑛)을 본다면 전선적으로도 굴지할만한 금산지이라는바 그중에서도 금맥이나기로 유명한 홍천에 금광을 조사해본다면 광구(鑛區)三十여개소인데 그중산업중에 ++八개소에 산금량은 월十여광산이 되는데 대개광산을보면 석보에도 三十二광이나 사용하므로 당국에서는 처체에 두통거리라는바 홍천에서도 삼승三陵금광과 소림(小林)금광은 백여만원의 자금을 드려 수十명게이로 채용중이라는데 광부수를 조사해보면 一천五백여명에 노동자들이 모이어잇다는바 날이갈수록 성지이양흥대되고 [illegible] 홍천은 장차 금광으로 크게발전되리라 한다.

養鷄家의 長霖突破策 ―十大秘訣―

一、乾燥

濕氣가많은것은 鷄에 不快할뿐아니라 寄生蟲及 細菌의 繁殖을助長시키고 舍內가濕潤되면 鷄의 體質이 더러워지고 乃至 産卵은生하게되는다 따라서 病鷄와 病卵은많이 지않기為하야 一年中에가장 濕氣가많은 장마중에는 될수잇는대로 濕氣를 除去하고 乾燥하게하는것이 必要하다 그方法으로는 于先 濕氣가많은 敷藁를 자조更新하여야하다 적어도三週日에 一次는가라줄 必要가잇다 다음으로는 每日아츰 糞掃除를勵行하는것도 必要하다 또한給水器는 舍內에물이나오지않도록 適當한곳에 두어야한다 運動場은 表面을 傾斜지게하든지 或은周圍에 깊이溝를파고 排水를잘하며 運動場中에 큰 못(池)을 파지않도록하고 집웅도잘修理하야 두어야 한다.

二、換氣

장마때에는 어데를勿論하고 무더운것이므로 蒸熱이야 참으로 鷄의大敵이다 鷄舍를 第一 피롭게하든 감모(感冒) 부프 지푸테리 [illegible] 痘瘡 [illegible] 結論은 다 通風의不安全의 不充分하대 原因되는것이다 그러면 이有害한蒸熱을 어떠케하면 좋을가 그것은 말할것도없이 換氣를 充分하게하고 舍內를 淸潔하게할때에 排氣窓과 等 其他各種의 換氣裝置를하야두는것이必要하다 장마中에도 晴天日等에는 前面後面의 窓을 全部開放하야 新鮮한 空氣를 舍內에 갈흥이 넘어주어야한다.

三、榮養

早春以來 連産의 鷄는 相當히 體力이 疲勞되고 그우에 自然의 氣流의 變調도 엇지못하야 그期間은 減産、休産、換羽가 되는일이잇다. 人情의 普通으로 産卵이 減少되면 좋지못한 飼料를 給與하고 管理도 自然 疎忽하야지기 쉬우나 그러케되면 成績은 漸漸 나빠지므로 體力의 根源이되는 榮養價가 높은 飼料를 給與하여야한다 그러치않어도 鷄의 消化機能의 活動이 鈍하야지므로 高粱 大麥 燕麥 파같은것은 勿論 小麥 粳麥의 類까지 消化不良으로되고 嚢中에 滯留되므로 이런消化不良의 穀物은 잘 가려주는것이必要하다.

그리고 이장마때는 比較的 濃厚한 飼料를 주자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産卵狀態를 觀察하야 決定할것이며 大體로는 많하지 않으나 減産의 徵候가잇으면 動物質을 增給한다 左에장마때의 飼料配合의 一例를 記載한다

飼料名	配合比(重量)
玉蜀黍	四〇〇
大麥	一〇〇
小麥	一五〇
粗糠	一〇〇
米糠	二五
麩	二五
魚粉	二〇〇

이配合比例는 一方法으로 表示한것이나 各自가各種의 有利한配合을 考察하는것이좋을것이다 그리고 右表配合에依한境遇에는 粒餌를따로줄 必要는없으나 境遇에따라서魚粉을 多少增量하면 좋다 다음으로 飼料는新鮮한것이 絶對必要하다 米糠、麥糠、玉蜀黍와같은것은 잘乾燥시켜 貯藏하야도 濕氣와高溫때문에 徽를生하야 腐敗되기쉬우므로 잠깐동안이라도 한번日光에쪼인後 通風이좋은곳에 保存하는것이必要하다 生魚類은 一夜經過하면 變質하는것이므로 이것을 鷄에주면 中毒되므로 주지않는것이 좋다. 또한 魚粉도 變質되기쉬우므로 자조日光에 쪼이는것이좋다. (계속)

白系露人이 山中牧場開設 上三峯驛附近에

【나남】 청진시외 [illegible]에 거주하는 백계노인(白系露人)으로 밀롱제조업자(酪業) [illegible] 스키씨는 지난十四일 길림에서빠게노인 하지유[illegible]씨부처와 주을온포에잇는 양코―스키씨 집에서 유우차유[illegible]하는 마성포(馬成浦)씨와함께 사실(會)二十一두 우유(乳牛)三두를 [illegible]다리고 三산봉에향하엿다는바 이것은 목축업을 경영하려는 계획으로 종성군종성면 금산동의원야와 상三봉역에서 동남방약 十리산중(지경동)을 답사하야 적당한지대를 발견하면 곳허가원을제출할 [illegible]이라고

고등어豐獲 每日百萬尾식잡어

【함흥】 전남완도군청산(全南莞島郡靑山) 靑島(郡靑山)에서는 (鯖)(고등어)대풍으로 매일백만마리(百萬尾)식잡아드리는데 그대금은 한마리에 평균二전가량 이라하야 二百여만원의거액이라한다 일반인민은 이사실에대한 [illegible] [illegible]틀다고 한다.

消費組合이 우리에게주는利益

韓秀龍

우리組合主義의 先覺者인 佛人 「푸리어」가 發言한바와 如히 「將次모든사람은 부르리라 우리의 工場 우리의집 우리의商店 우리의땅이라고 그리고 그들이이즐용하던所有代名詞 「우리의」를 發言하면서 過去에 「나의」라는 所有代名詞를 發音하며 느끼든 그기쁨을 意識하게 되면 그것하나이 벌서 이世上에 道德이 크게發達한것을 意味하리라」(지―드著協同組合參照)

第五로 消費組合의 理想은 이世上으로하여금 平和의 樂園으로 化하려고한다

佛國의 나―드學派의 巨星인 「샬지―드」敎授는 말하기를 「우리가 只今사는 이世上은 곤칠새업이서로싸우는 戰場이다 이不絶하는 爭鬪는 唯獨人類의 天衆的爭鬪性으로 由來하는바가아니오 現經濟組織이란 原因이되어잇다 現社會의 經濟組織은 利害相反하는 屬主와 勞働者、債權者와 債務者、所有者와 賣借人、商人과 顧客等을互相對立케 하여苦고 禪함하고 殘忍한 術法으로 그내부로하여곰싸우게하야서로싸우되 서로여힐수가 없게될처하엿다

그러대 우리組合은 모든 이서로싸우는 파들을 龍종게 서로 結婚하게하여준다」(지―드著協同組合參照)화파같이 모다 계合히 私利를 爲하는 利己的現社會에 잇어서는 시로私慾만爲하야 他人의 利益을 犧牲으로하시아니하면 自己의 利益을主張할수가 不能하니 自然의 爭鬪가 不絶하것은 事實이나 自己의利益과 他人의利益과區別없이 自己네 利益을스스로圖謀하기를 目的하는 組合內에잇어서는 제가 自己와 싸울理가 없을것이다 따라서 社會的모순의 一掃하게되고 만것이다 一步더나가 消費組合運動이 將次全世界에 完全히 傳播되어 全世界를 統御하는時에는 오늘우리가 空想으로 생각하는 國際的平和까지 實現할수가 잇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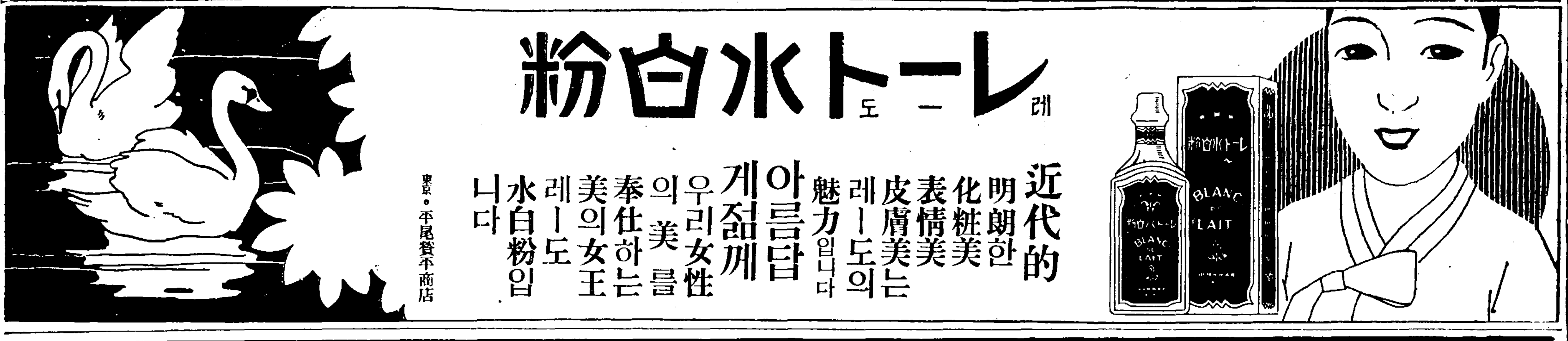
그것은 元來消費組合主義는 國際的으로 貿易의自由를 主張하는 까닭이다 今日에 所謂쓔羅經濟下에 盛行하는 關稅戰은 自然히 撤廢될것이오 오늘政治的戰爭의 大原因은 經濟的戰爭에잇는시라 이政治的戰爭도 어느程度까지 緩和하게될뿐만아니라 國際的 消費組合聯盟으로써 積極的으로 平和를實現하려고하니 戰爭이나 개될 餘地가없을것이다

獨人 「슈렉게어 博士」의 말과같이 國際的平和에도 供獻하이많을 것이다.

보라 消費組合의 理想을! 그가 우리에게 주는利益을! 우리가消費組合을 必要치않을것인가?

모으라 消費組合旗幟下에! 두손이 多情스럽게 잡히한 그의 쌍면이다! 各個人는 全體를 爲하고 全體는 各個人을 爲하다하은 그의 標語이다!

【完】



·暴風雨再襲

饑寒에우는六千生靈
避亂地에惡疫까지發生
釜山救護班藥品갖고現場出動
災民、普校와倉庫에收容

【부산지국전화】 방구포(龜浦)에는 피란민이 농업창고에 一천명 사상(沙上)에 二천五백명 합계五천五백명이 잇는데 병난환자가 많다는정보가 잇어 본사지국구호반에서는 부산부내 에비스약방에서 영신환 五백포와 부내동산(東山) 경남(慶南) 아세아(亞細亞) 영제(永濟) 동인(同仁) 각의원파 이건용(李建鎔)씨등으로부터 건위고장환 각五十봉씩 기수을받어 곧 구포로 출동하야 환자에게 약을배부하고 사상의 피난민에게는 손이 모자라서 약을배부하지못하엿다。

泄瀉患者二百餘名
收容者中에病者續出

【동래지국전보】 동래군사상면(東萊郡沙上面)의피해는 二十三일 밤까지 판명된것이 침수가옥 一천七백호 침수전답 七백정보 도피가옥 一백호인데 피난민은 약 一천八백명이 사상보통학교에 수용되엇다。 현재 그들은 식사와 음료수에 곤난을 반으며 또 환자가 속출하고잇는데 현재 복통파 설사환자가 二백명 가량이고 적리환자가 十명이라고 한다。

濁流、金海邑流入
五千名山中避難

【김해지국전보】 김해(金海)평야에는 드디어 큰바다로화하야 읍내(邑內)와 가락면(駕洛面) 파는 교통이 두절되엇다。대저면(大渚面)가락면은 도도한 탁류에 싸이어잇는 이재민들의 구조를 붉으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모치는 듯하고 김해읍내에는 탁류가 드디어침입하야 전하리(田下里)화목리(花木里)소상리(小倉里)의 피난민은 속속 읍내높은지대로 피난하므로 각면의 피난민 一천五백명은 가락보통학교에 수용하야잇고 제도리(濟島里) 이재민 五천명은녹산면(菉山面)산으로 피란하고대저면 울만리(蔚滿里)덕두리(德斗里)는 전부유실되어본보 김해지국 구호반 八명 一행은 폭우탁류와 싸우며 결사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대저면평강리(平江里)의 위기일발에잇든 피난민 八十명을 구해내어 김해 합성학교에 수용하엿다。

暴風에救助船顚覆
溺水한七名은慘死
十五名中에八名은氣絕

【釜山에서 特派員 姜大洪 至急電報】 二十二일 오전十시에 김해군대저면평강리 울만리(平江里、蔚滿里)이재민을 김해군가락면칠천산(七天山)으로 경남도토목파에서 발동기와 범선으로 구출에 노력중 평강에서 四정지점에서 폭풍을맞나 이재민을 실으나 범선이 전복되엇으므로 발동선은 지편육지에 갓다가 돌아와서 익수자十五명을 전부 구출을하엿으나 八명은 기절하고 七명은 드되어 사망하고 말엇는데 사망자의 씨명은 알에와갓다。

◇平口里 鄭在洙의妻 朴斗年(三二) 長男 文山(七) ◇平江里 李孫得의妻 辛根女(二六) ◇平江里 尹致浩의妻 梁敬心(三五) 子 鎭守(二) 弟 尹平植(三二) ◇平江里 裵今柱의妻 尹文玉(四) 그러고 부산지방에는 목하 강우가 계속중이다。

交通杜絕로
救濟品停滯
進永、德山間浸水로

【진영지국전보】 진영의생명선인진영과 밥산(鉢山)간의 선로가 침수로인하야 二十三일 오후八시부터 교통이두절되어 구제품은만이 불능하게되엇는데 통우는 아직도 계속되고잇는중 이다。

高靈交通杜絕

【고령지국전보】 十八일부터 二十三일까지 온 우량이 四백四十三미리에 달하엿는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잇다。 대구(大邱) 거창(居昌)합천(陜川)간의 교통이 두절되엇다。

三浪津四千罹災民
藥品、糧米를配給
第一救護班猛活動中

【三浪津에서 特派員 金勝文發電】 증수는 방금 三十척 八촌에서 三十척 六촌으로 二촌가량이 줄엇으나 비는 진파갑이 계속하리라는 경고가 잇어 四천명의 피난민은 지금 전전긍긍하는 가운대잇다。 우리 구호반은 약파쌀을 배급하는 중에 잇다。

暴雨再襲

한발로 인하야 농작물이 전멸상태에 빠젓다고 하늘을 향하야 원망하고잇던 三남지방에는 지난 十八일부터 시작한비가 호우에서 폭우로변하야 막대한 피해를입히고시각으로 늘는자로하야금 모골이송연하게하거니와 부산파 진영 삼랑진등지에서온 본사특파원의 보고에의하면 그칠줄모르는비가 二十三일저녁에 ...

麥島災民一千五百
飢餓線上에서彷徨
至急救助를慶南道에陳情

【釜山特派員姜大洪電話】 김해군 대지면 맥도리(麥島里)이재민一천五백명은 집파식료품을 침몰당하고 생사의 기로에서게된 二천五백명은 대표자七인을 선발하야 지급히 구조해주기를 경남도청에 진정하엿다。

密陽城內에 浸水된 畫報

三浪津七百戶流失
食糧柴木이缺乏
密陽과 三浪津 浸水七千戶
飮料水없어勿禁에서運搬

【三浪津에서 特派員 宋基贊發電】 三랑진방면의 홍수는 조금식 감수되어 二十三일 오후五시까지 九메돌 三七올 가르치고 잇으나 금년홍수는 작년홍수보다 성질이달라 작년침수되어 四일만에 감퇴되엇는데 금년은 범람되어 이미 四일만인데지금부터 감퇴되기까지는 상상조차 할수없는 상태에 달햇다。작년에 삼랑진에만 전반피유실가옥 七백호、밀양전군을 통하야 一천호이던것이 전기와 같이 금번은 침수기간이 긴것파 오랫동안의 한발의뒤에 갑작이온 침수로 전반피유실가옥은 적어도작년의 약三배쯤 되는데 삼랑진방면에 약一천五백호、밀양전군에는 실로 五、六천호에 달할 모양이다。특히 금년 이지방의 보리는 평년보다 四割감수의 흉작으로 작년의 피해가 아직도 풀리지않엇는판이라 二만五천 이재민의 금후생도는 참으로 우려되는중이다。삼랑진방면이재민에게는 경남도로부터의 구제반파 본사의 구호끼리구호로 겨우 명맥을 붙이게되어 이재 제四일재인데 무엇보다 급한문제는 식량이나 쌀만잇어도 시탄의 결핍으로 곤란한우에 음료수가 고갈된 파차가 물금(勿禁)방면에서 운반하고잇는 형편으로 현재는 거의 음료수도 큰 문제중이다。

京釜線乘客裡里에
湖南線도不通으로混亂
災民은松汀驛倉庫에收容

【松汀里特派員金光發電】 전남지방에는 지난 十八일부터 나리기시작한비는 이제까지 계속하야 五백미리 이상이나 되어 영산강(榮山江)은 十미돌 이상의 증수를 보게되엇다。 영산강 연안 一만五천정보가 침수 되엇다한다 계속하는 비에 五일간이나 침수된 판계로 농작의 전멸은 기보하야어나와 경부선 철도의 불통으로 승객들은 二十二일밤 十시차로 대구에서 갈아타 가지고 호남선 이리(裡里)까지 왓엇으나 역시 송정리(松汀里)와임곡(林谷)간의 철도불통파 남평 보안파 드량간의 불통으로 그대로 이리에 머물게 되엇다。그리고 송정면신덕리(松汀面新德里)의 주민 三백명은 十一일 전부 송정리로 피난햇다가 二十二일에 이르러 조금씩 감수되는것을 보고 다시 집을 찾어갓다가 二十三일 밤에 다시 증수되기시작해서 二十三일 아침 二시에 구조선으로 하야 송정리 역의 창고와 면사무소에 모두 수용하엿다。

忠北線浸水不通
道路廿餘個所破損

【충북청주지국전보】 二十二일 밤부터 二十三일 낮까지 청주지방에는 약二백미리의 호우가 잇엇고 또 뭐하 매시간 七미리의우량으로계속중인데무심천(無心川)내물은 평분둑물로 화하야 시시각각 증수되고 잇는중이다。 도내의 교통은 청주를 중심으로 자동차는 전부불통되엇고 충북선(忠北線)도안(道安) 보천(甫川)간 十九키로지점이 침수로 되고 청주、조치원(鳥致院)간에 있는 다리가추락되고 기타각지에 금강(錦江)홍수 三十六척、옥천보은(報恩)간 도로 침수、대전(大田)、천안(天安)으로는 二十여개소가 파손 두절되고 각각으로 증수되고 잇으므로 주민의 생명은 매우 위태한 상태에 빠젓다。 도로 하천 교량 농작물 가옥 등 상당한 피해가 잇을 모양이나 역시 교통관계로 자세한 보고가 없다。 청주읍 최돈기(二三)는 아침 九시에 무심강에 떠나려가는 나무를주으려다가 탁류에 익사하엿다。

生命線堤防中心으로
助村、白鷗面民對峙

【전주지국전화】 전주군조촌면민(助村面民)파김제군 백구면민(白鷗面民) 사이에큰 물의제방을 막는것으로말성이 되어 약 三백명이 대치하고 잇는것을 二十三일 오후 三시경에 도청토목파와경찰부에서 출동하야 一단설유를하야 진압 시키엇다。

全州下里의一千戶
四面濁浪에包圍

【전주지국전화】 전주군초포면하리(全州郡草浦面下里)는 거이 천호가량이나 사는동리인데 사면이 전부 물로 푸위되어 교통이 막힌까닭에 그곳의 소식을 전연 알수없으므로 二十三일오후에 경찰당국에서는 배를가지고 구조에 떠낫다고한다。

집웅우에서呼哭
彩雲面壯丁徵發救助

【강경지국전보】 강우는 겨우 그첫으나 금강(錦江)물은 九메돌五이고 채운면(彩雲面)삼거리(三巨里)까지 물이 범람해서 침수가옥은 三백호에 달하엿는데 그들은 모다 집웅우에 올라서 평파리를 올리고 구호를 부르짖는소리가 탁류를건너 들려오는데 구호를 떠나든 배는 격랑으로 나가지못하고 돌아왓다。 강경경찰서는 제방이 결피될염려가 잇어 구제의 손을 내밀지못하는 형편이라 해가 저물어지고보면 그들의 생명이 어떠케될가 극히 염려되는 중이다。 읍사무소에서는 긴급회의를열고 배호에 二○인씩 장정을시켜 구아할 경계하기로되엇다。이재민은 더욱가되는중이나 수확할기적이없이 거리에 방황하는중이다。

今後로有望

【三浪津에서特派員 宋基贊至急電報】 二十三일 오후八시 철도방면의 정보에의하면 지금까지안정햇든 마산선(馬山線)의 진영(進永)덕산(德山)간도 각각으로 증수되어 위기일발의 위험에빠저잇다는바 지금의정세로는 마산파 진영간의 소식을 염려한 기차의 운행이 二十四일 아침부터는 불가능하게될 모양이고 진영일대의 수해는 더욱심한 형편이라 그렇파가 자못우려되는 바다。 삼랑진(三浪津)지방의 비는 二十三일밤에 이르러 각각으로 심하여가는 폭우로 이재민들에게 설상가상의 공포를 주고잇다。

麗水에寄港
湖南線파聯絡되어

【여수지국전보】 경부선(京釜線)이 파괴된까닭에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이 부산에 닿지 못하고 二十三일부터 三일간은 여수(麗水)에 기항케되엇다。 그까닭에 호남선(湖南線)과 연락되어 여수(麗水)는 연락선파 함께 올르고나리는 선객으로 북적하고잇다。

總督府衛生課
藥品을準備中

총독부 위생과에서는 남선재지에 각종병이 발생될염려하고 위장약(胃腸藥) 피부약(皮膚藥) 안약(眼藥) 각각이 모아두고 지방으로부터 비와 도의 청구에 응하야 보내주기로 되엇다고한다。

ClibPDF - www.fastio.com

同志의脫出旅費얻고저 娼妓로팔린女黨員

"黨에받친몸이니黨을爲해犧牲"

平北警察에잡힌미스·최

主義에받친貞操

[illegible]

情操蹂躙코 畢竟은排斥

몸만버려놓고 본척만척해

被害者는告訴提起

[illegible]

永興敎育講習會

[illegible]

衆醒學院에 二百圓寄附

[illegible]

咸南陽化海水浴場

協和會經理科長 萬四千餘圓橫領

廿日 關係者를 續續檢擧코

憲兵隊大活動開始

[illegible]

擔當敎員病臥로 學課敎授不充分

학과를 충분이 배우지 못해

高原公普六年生들

[illegible]

順天夏季修養會

[illegible]

汶山支局主催洋裁講習會

咸南簡易校 三十二校認可

今年收容二千餘名

[illegible]

敎員講習會

[illegible]

金剛記者團第一回定總

長淵郡管下 八個書堂認可

[illegible]

主人잃어問題中이든 純宗御下賜金

三천여원을사업비로

開城商議가適宜運用

[illegible]

車輪紛失二百

[illegible]

亭淵遊覽客 電車賃五割引

[illegible]

淮陽婦女講習會

[illegible]

農村問題討論會

[illegible]

羅津下水道 第二期計劃可決

[illegible]

洪原市內電話

[illegible]

促健體操講習

[illegible]

運餉幼園保護會

[illegible]

幼園爲하야 同情金遝至

[illegible]

深夜의太陽 (67)

金基鎭 作 李象範 畫

봉화를 들고 (十)

[illegible]

思はざる岡田新内閣出現の眞相をあばく秘鍵はこゝにこの一冊に!

中央公論

★岡田内閣特輯★八月號……定價八十錢

西園寺公の心境

新内閣成立と政黨・森口繁治

重臣會議 阿部眞之助

謎の日支關係・田中香苗

新内閣五人男 岩淵辰雄

國民主義と國粹主義……今井登志喜

現代社會と宗教……友松圓諦

世界經濟の瓦解か再建か?……名和統一

岡田内閣とわが政友會 鈴木喜三郎

軍縮會議をめぐる經濟關係…石濱知行

將棋名人氣質・菅谷北斗星

夏の灯物語・遠山靜雄

高粱と匪賊・中西伊之助

硝子雜攷・岡村千曳

隱身術綺談・藤枝丈夫

新聞値上裏話・坂谷幸太郎

屍体の感觸

インチキ金融往來・夏山太郎

若手俳優論・石割松太郎

熱帶魚商人氣質・田中新一

全日本あの町この町・樫内吉胤

女性は訴へる・玉城肇

文章心理學・波多野完治

(巻頭論文) インフレ日本の今迄と今後・猪俣津南雄

大政友會分裂の危機・野村秀雄

低金利革命の國民生活への影響・高橋亀吉

兇刃に傷けられて・鈴木文史朗

ナチス隱謀事件の詳報・益田豊彦

高橋財政の檢討・阿部賢一

大新聞幹部論 伊藤正德

エンゲルス論 向坂逸郎

醫師會混乱の分析・安田德太郎

星亭の半面 山崎林太郎

吉右衛門藝談

山田耕作

法律身上相談

★街の人物評論 小山松吉 小野賢一郎 鈴木喜三郎 山本昌一

犯罪都市東京 甲賀三郎

(小說) 友情 立野信之

喫煙四十年 吉村冬彦

岡田内閣論 馬場恒吾

新刊隨筆 人間修行 登張竹風著

これぞ眞の人間、眞の男子の赤裸な姿だ。一日は酒修行と題した位、全篇これ酒ならざるはなく、登場人物凡て超凡脫俗痛快淋漓、濁世に澗く一陣の涼風、盛夏絶好の伴侶である

中央公論社出版

東京丸ビル五階 中央公論社